

# 증권사, 배당금으로 ‘실적방어’ “불확실성에 회복지연 가능성 ↑”

60개 증권사, 작년 당기순이익 5.7조  
일회성손익 제외 시 전년비 20%↓  
기업밸류업 바탕으로 주주환원 나서

증권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2022년)보다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배당금 수익과 같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몇몇 증권사들은 예년 대비 배당 규모 확대하며 ‘주주환원주의’ 실천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7960억원으로 전년 4조4549억원보다 30.1% 증가한 1조341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일회성 손익인 2조2000억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20.2%) 줄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로, 전년(5.7%)보다 1.9%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보면 수수료 수익은 11조7244억원으로 2022년(13조388억원)과 비교해 1조3144억원(10.1%) 감소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

면서 수탁 수수료는 같은 기간 5010억원(10.0%) 증가한 5조53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채무보증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기업금융(IB)은 1년 전보다 5619억원(32.3%) 줄어든 3조2769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일임과 자문 수수료가 줄면서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도 448억원(3.9%) 감소한 1조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매매손익은 9조2181억원으로 전년(3조5579억원)보다 5조6602억원(159.1%) 늘었다.

이는 금리 안정화로 인한 채권 관련 손익이 12조1633억원(2051.6%)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파생 관련 손실은 4조7550억원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에 따른 매도와 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증가했다. 기타자산손익은 3조1289억원, 판매관리비는 10조921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증권사의 자산 총액은 686조9000억원, 부채는 601조6000억원, 자본은 85조3000억원이다. 2022년보다 자산과 부채는 13%, 자본은 6% 늘었다.

증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34.9%로 전년 말보다 30.3%p 증가했다. 모든 증권사가 규제비율인 100%를 상회했

다.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645.6%로 직전 연도보다 26.4%p 늘었다.

3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27억7000만원, ROE는 15.6%다.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5조5830억원, 부채 4조9459억원, 자본 6371억원이다. 순자본 비율은 1336.9%다.

금감원은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증권사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증권업계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삼성증권은 21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2023년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2200원으로 작년 1700원에서 29.4%(500원) 올린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보통주에 800원, 우선주에 8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해당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금 총액은 약 2808억원으로 이는 전년(2458억원)과 비교해 약 14% 늘어난 규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월 중에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증권사들의 주주환원에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SK증권, 박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전 KB증권 사장)

주총서 안건 통과… 임기 3년

SK증권이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사진)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박 전 사장은 KB국민은행에서 부행장을 거쳐 2017년 KB증권에 합류했다. 그는 2019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오르며 국내 증권업계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라임펀드 관련 내



부통제 기준 마련의 무위반 등의 문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으면서 연임이 무산됐다. 현재 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징계 관련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마스터 PB 18명 선정

삼성증권은 2024년 마스터(Master) 프라이빗 뱅커(PB)로 18명을 선정하고,

삼성증권 본사에서 마스터 PB 인증식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처음 시작된 삼성증권의 Master PB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며, 600명에 달하는 삼성증권 PB 중 성과가 최상위인 골든 마스터 PB 5명을 포함해 총 18명이 마스터 PB로 선정됐다. 이들 18명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예탁자산은 26조원 규모로 국내 주요 공제회 급의 자산규모에 달한다. 이들은 초부유층 고객을 위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객 만족도 및 여러 가지의 정량적·정성적 평가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 관리되고 있다.

/삼성증권

## STO 법제화 지연에도 플랫폼 구축 ‘착착’

증권사, 거래 수수료 수익 등 새 먹거리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 완판 실패에도  
올 34조 → 2030년 367조 성장 전망

토권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조각투자 상품들의 흥행 실패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토권 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5~6년 이내에 시장이 10배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권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잇따라 완판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식어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발행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쿠사마 야오이의 ‘호박’은 청약률이 73%에 그치며 실권주가 발생했고, 서울옥션블루가 선보인 앤디워홀의 ‘달러사인’ 8호 공모도 청약률이 77% 수준이었다. 투게더아트와 조각투자 청약률도 86%로 목표액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토권증권 시장 활성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미 STO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STO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조각투

자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STO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거래 수수료 수익 등 토권증권의 유통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권증권 시장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의 기반 개발사 블록체인글로벌 등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토권증권 발행과 유통 인프라에서 컨설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지난달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과 MOU를 체결했으며 하나증권은 프린트베이커리, 루센트블록, 파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과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아트 플랫폼 ‘아트’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크우’를 운영하는 스타키퍼와 협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은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B·신한투자·NH투자증권은 3사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대형 증권사

공동 인프라’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6월부터 토권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권증권 플랫폼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MTS를 통한 토권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의 기반 토권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했다.

삼성·SK증권도 우리은행과 토권증권 사업 기반을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토권증권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황으로 올해 중 플랫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를 도입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에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가 신설되고, 현행법상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안 발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 데다 더욱이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상반기 중 법안 수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토권 증권 제도화에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나서

환경부 주관… 시범사업자 단독 선정

NH투자증권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 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NH투자증권 전경.

/NH투자증권

또한 향후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배출권 위탁매매제도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Client) 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